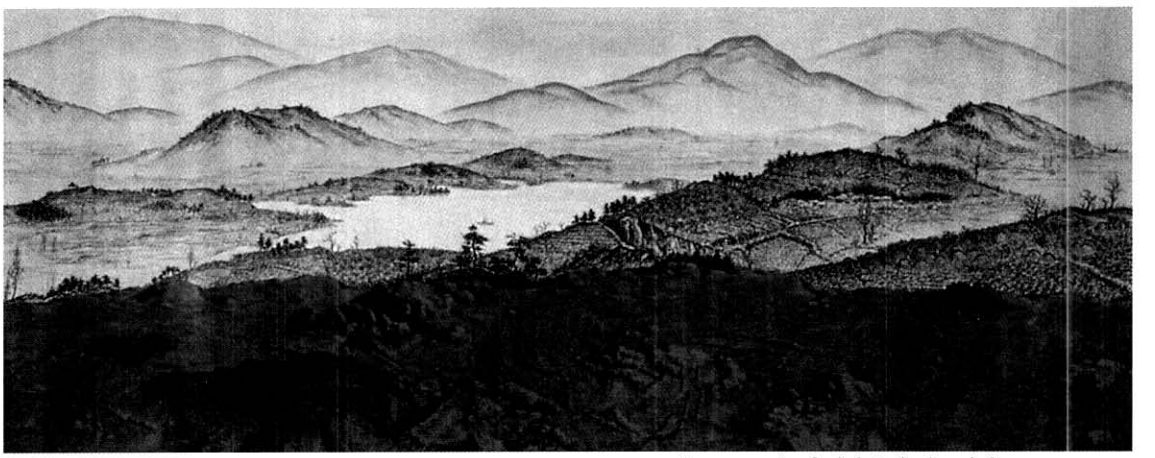

땅II , 1981년, 천 위에 유채, 아크릴릭, 350 × 135cm

시대라는 무대 위의 악역과 피해자들

이 작품은 1982년 12월에 당국에 압수되어 88년 10월까지 6년여동안 다른 3점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 지하창고에 처박혀 있었다.

전주의 집까지 헤집고 들어와 나의 생활과 환경 등 모든 것을 살피고 작품을 빼앗아간 당시 문화공보부 예술과장 김진무는 "도와주러 왔소. 잠시 작품을 빌려주면 내년 1월까지 책임지고 되돌려주겠오. 도와주시오." 하며 매우 호의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였다. 사실 우리들(김정헌, 신경호, 김경인, 강광, 홍성담 그리고 그 밖의 「현실과 발언」동인들)은 오늘 내일 조마조마 하면서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당국으로부터 일련의 미술인을 내사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그 대부분은 「현실과 발언」회원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번 간 작품들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들은 정부측의 탄압은 물론이었고, 「조선일보」 등의 언론계의 집중적인 비난과 기업 그리고 특히 교육계의 따돌림까지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직장(대부분 대학교수)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몇은 쫓겨도 났고, 그 이후로 민주화가 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대학교수로 신규채용되지 못했다.

1983년 1월초, 나는 유준상(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선생에게 이끌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 이경성 선생께 새해 인사를 갔다. 유준상 선생이 인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경성 관장은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오광수(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선생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만 하길 다행입니다"

유준상 선생도 맞장구를 쳤다. 순간 어떤 것이 나의 뇌리를 쳤다.

'아, 이 사람들이...'

나는 사건 전체를 싸 맞추었다. 입수된 정보에 따라 뒷조사를 시작한 당국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기관인 현대미술관에 이 일이 맡겨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물론 악역을 맡은 현대미술관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언지하에 '문제없음' 으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 일을 '성실' 하게 수행하였다. 일부 첨가시키기도 하고 제외시키기도 하였을 것이다.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노력' 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미술의 탄압이고 예술의 국가관리인 점을 간과하거나 부화뇌동하였다. 직을 걸고 단호하게 맞섰더라면 일련의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니까 말이다.

잘 보아줘서 사건을 크게 벌리지 말라는 견해를 덧붙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혐의없음' 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추려지고 걸러져서 두꺼운 사건전말 기록부(작품을 압수하러 온 그들은 엄청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에 오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오광수 선생이 전문가로서 바로 서 있었다면, 아니 이경성 선생이 최종적으로 이를 틀어 줬더라면 사건은 종결되었을 것이다.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비이락인지 모르지만 오광수 선생은 그 직후 일년간 파리로 연수를 떠났다. 유준상 선생이 무슨 역할을 한지는 모르지만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유 선생은 83년, 84년 당시 화제가 되었던 서울미술관의 문제작가로 연달아 나를 추천해주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되는 민중미술계의 '의혹' 의 표적이 되었던 오광수 선생은 나를 포함하여 김경인, 신경호, 김정헌 등을 1997년 명예훼손으로 광주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고소를 취하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은 그로서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화합 차원에서 이를 취하하라는 압력을 비엔날레 당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그렇게 잠겨졌다.

일전을 불사하려던 우리는 씁쓸히 웃고 말았다. 오광수 선생은 만약 당신이 결백하다면 문제의 그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당신이 악역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면 그 혐의를 해명키 위해서 자기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를 충분히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 대비하였을 것이다. 사법당국을 찾을 일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변명' 을 해야 할 일이다.

당신들은 모른다. 당한 당사자들이 그 이후 어떤 인생행로를 걸었는지. 이대로 붓을 꺾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었다. 결국 사회의 낙오자요, 무능력자요, 패배자라는 자괴감이었다.

민주화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이들은 천수를 누리고 있다. 그들에게 독재정권이면 어떻고 또 문민, 국민의 정부면 대수냐. 늘 권력을 따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면 되는 것! 그들이 우리를 옭아맨 것은 '사상-이념' 이었다.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적어도 용공분자들-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올가미였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이 그러기로 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었던가. 이 작품(나머지 작품도 마찬가지지만)을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해석하였다.

"우리 나라 전체를 공산화하자는 것으로 막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그 근거로 그들은 붉은 색을 짚었다. 빨강색! 그러고 보니 문제가 된 나의 작품들은 붉은 색이 지배적인 그림들이었다. 그들이 보여준 조서에 따르면, '적화된 한반도' , '붉은 세상을 꿈꾸는 그림' , '광주사태의 상징적 표현' 등으로 모두 붉은 색을 지적하는 것들이었다. 신경호의 그림 역시 똑같이 붉은 색을 걸고 넘어졌다.

나는 문공부에서 강제한, 이 작품에 대한 해명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다음 호에 계속)

www.oksanglim.com